

비분강개의 두가지 이유

6학년 우리 담임 선생님은
 5·18에 대한 정의를 한마디로
 빨갱이의 반란이라 하셨다.
 분명 교과서나 신문에
 민주화 항쟁이라 기록되었지만
 한치의 물러섬 없이
 추호의 의심도 없이
 혐오스레 불온한 좌파의 짓이라 하셨다.

중학교 2학년 우리 담임 선생님은
 5·18에 대한 정의를 한마디로
 민주화를 위한 광주시민의 용기라 하셨다.
 분명 6학년 담임 선생님과 다른
 역사에 남을 진정한 민주항쟁이라고
 한치의 망설임 없이
 추호의 주저함 없이
 자랑스레 민주화의 상징이라 하셨다.
 예순 살의 선생님과 마흔 살의 선생님은
 서로 다른 이유와 시선으로
 1980년 오월의 광주를 바라보신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역사를 가진
 한 나라 사람이 이리 다를까?
 우파와 좌파, 구세대와 신세대
 영남과 호남이라는 이분법이
 민주화 운동으로 광주에서 죽어간 열사들의 희생에
 민주화 운동을 세계에서 이어가는 시민들의 노력에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나는 정말 슬프고 분하여
 또다른 이유로 비분강개한다.

아직 깨지지 않은 금기

글 · 이유민

어렸을 때 외할머니는 직장 생활을 하시는 엄마를 대
 신해 내게 자주 동화책을 읽어주셨다. 주로 전형적인
 어린소녀의 취향을 반영해 백설 공주나 신데렐라, 인어
 공주 등 지금까지도 많이 읽히는 유명한 공주 시리즈였
 다. 여러 번을 들어도 무척이나 재미있어 나는 거의 매
 일 할머니를 졸라 조금이라도 더 동화책 내용을 듣고
 싶어 했었던 기억이 난다.

그때마다 할머니는 내게 항상 책의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읽을테니 내 마음대로 건너뛰어 행복하고 즐거
 운 부분만 보면 안 된다고 여러 번 다짐을 받고서야 책
 장을 펼치셨다. 주인공이 어려움을 당하는 부분과 예쁘
 고 착한 공주를 괴롭히는 못된 인물들을 유독 싫어해서
 자꾸 그 부분은 들으려 하지 않아 할머니는 순서를 무
 시한 채 읽어 주시느라 애를 먹었다.



백설 공주가 사과를 먹거나 신데렐라가 12시까지만
 아름다울 수 있는 것, 내재 동화 속 이런 금기가 가슴
 답답하고 화가 났었다. 함부로 발설해서는 안 되고 지
 키지 않으면 한 순간에 자신의 운명을 나락으로 떨어뜨
 릴 수 있는 이야기 속 금기의 장치가 30년 전 우리 사
 회에서도 존재했다. 1980년 5월 광주에서 말이다.

진실을 말하는 이들의 외침은 무차별적인 진압으로
 짓밟히고 이 사건에 대해 말하는 것조차 일절 금지되었
 기 때문이다. 동화 속 주인공이 금기를 깨뜨리고도 금
 방 행복한 결말을 맺게 되는 것과는 상대적으로 광주의
 시민 열사들은 죽음과 고문, 그리고 실종이라는 엄청난
 고난을 겪어냈다. 또한 부당한 방법으로 정권을 잡은
 잔인한 권력이 만들어낸 차별과 편견 속에 긴 시간을
 철저히 유린당하고 방치되었다. 심지어 전라도 출신이
 라는 사실만으로 공무원이나 군인, 회사 입사까지도 보

이지 않는 불이익을 받았고 시위 참가자나 대학생들은
 대역 죄인처럼 정부 기관의 감시 속에 불안한 생활을
 해야만 했다. 전라도 사람들은 기가 세고 영악하다는
 말도 안되는 선입견이 우리 사회에 자라났고 대통령의
 고향이라 하여 경상도 사람들은 어깨에 힘을 집어넣을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우리는 영남과 호남으로 분열되어 갔고 기득
 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많은 불평등과 인권을 침해하
 는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되었다.

한번 자리 잡은 의식과 선입견은 광주 시민들의 억울
 함과는 상관없이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어 버렸고 ‘광
 주 사태’ 라는 반란으로 규정되어 억울한 그들의 삶에
 단단한 족쇄까지 채워버린 것이다.

초등학교 때 선생님은 광주 5·18은 북한의 빨갱이

들이 선동해 일어난 국가적 반역이었다고 확고한 의지로 말씀하셨고 중학교 때 국사 선생님은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정부가 국민들에게 자신들의 권력의 정당성을 억지로 심어주어야 해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야당 정치인의 지지 기반이었던 광주를 본보기로 탄압하려고 한

우리 사회에서 진정한 민주주의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게 한 그 소중한 항쟁이 더 이상 이념적 색깔론에 휘둘리는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한다. 더불어 공교육에서 더 많은 자료와 교육으로 용감한 시민들이 이끌어 낸 가치 있는 승리를 접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본다.

어려움을 이겨내고 꼭 금기를 깨뜨려야만 주인공은 비로소 행복해 질 수 있다.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방법 역시 동화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5·18을 민주화 항쟁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오해와 이분법적 사상론의 금기를 깨야 할 것이다. 30년 전 광주에서 의로운 항거를 했던 주인공들에

게 이제는 진심어린 존경의 마음을 전달하고 그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의 결말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다시 한 번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것이다.

글 이유민 | 서울 숙명여자고등학교 1학년. 시 '비분강개의 두가지 이유'로 2008년 5·18민중항쟁기념 서울청소년대회(5·18민중항쟁 서울기념사업회 주최) 운문부문 최우수상 수상



억지 시나리오였다고 설명해 주셨다.

90년대에 들어서셔야 겨우 광주에 대한 언급이라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선생님의 말씀에서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의 씩씩한 뒷모습에 적잖이 실망을 하고 무척 화가 났었다.

광주의 아픔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5·18항쟁은 6월 항쟁의 불씨가 되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자유를 향한 광장으로 불러 모으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나는

흑백 사진 한장

세상의 모든 색을 다 담고도
한가지의 빛깔밖에 내지 못하는
짙은 회색의 비애처럼
세상의 모든 불평등을 소리내고도
한가지의 이유로 고통스러웠던
회색 사진 속 광주의 모습

차리리

오월의 푸른 하늘 빛이나
검은 곤봉과 장총의 섬뜩함이
붉은 민주화의 꽃잎과 함께
색색이 선명하게 그려졌다면
덜 슬프고 아팠을까?

회색빛 아스팔트 위에
그 보다 더 회색빛의
쓰러진 젊은 청년과
무자비한 진압군의 발길질이
명암을 달리하며 점점 짙어지네

흑백 사진 한장에 담긴
색깔없는 오월정신이
세상의 어떤색보다 강렬하게
가슴에 선명한 인상을 남기네.

글 · 마미혜

잊혀진 빛바랜 사진의 비애

그 사진을 보게 된 계기와 시간은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그때의 충격과 느낌만은 아직도 내 몸 구석구석에 생생하게 남아있다. 서울에서 고속철로 3시간 남짓인 멀지 않은 그곳 광주에 나는 한 번도 가 본 적이 없다. 친인척을 포함해 부모님의 지인들까지 모두 서울과 경기권에 살고 계신 이유로 광주는 내게 물리적인 거리보다 훨씬 멀리 존재해 있던 낯선 곳이었다.

영화 <화려한 휴가>로 높아졌던 5·18 민중항쟁에 대한 관심이 다시 세간에서 사라질 때 즈음, 학교 도서실에서 책들을 둘러보다 아주 우연히 그 사진과 맞닥뜨렸다. 우리나라의 현대사에 관한 사진들과 설명을 담고 있던 책 중간부분에서 어떤 고화질 사진보다 선명한 인상을 남게 한 그 흑백사진은 그대로 내 머릿속에 각인되어 버렸다.